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I. 서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정일 사망 5일째 되던 2011년 12월 22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은을 ‘김정은 동지’로 호명하면서 ‘승고한 흰눈철학의 순결한 계승’으로서 후계 계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이를 뒤인 12월 24일에는 김정은을 ‘대장 각하’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24일부터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였다.¹⁾ 2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김정은에게는 ‘각하’ 칭호와 함께 ‘조선인민의 정신적 기둥’으로서 위상이 지워졌다.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김정일 시대는 막을 내렸다. 김정일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국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후계자 김정은에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으로의 등극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하였다.²⁾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2012년 신년사는 2012년 한 해의 신년사를 넘어 김정은 시대의 비전을 선언하는 신년사였다. 2012년은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등장한 첫해이자 주체 101년이 되는 해였다. ‘주체의 한 세기’를 마치고 새로운 주체의 한 시기가 시작되는 해로, 새로운 주체 100년이 시작되는 해였다.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인민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인 김일성의 후광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새로운 세기의 지도자로 등장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게 기대하는 인민의 요구를 새로운 세기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구체적인 발전 운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미래 사회 건설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 아닌 선대의 유훈으로 규정하였다.

1) 「정론, 위대한 눈보라한생」, 『로동신문』, 2011년 12월 22일 : “위대한 장군님께 기쁘드릴 가장 성대한 경축공연무대를 품들여 마련해가시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장군님의 휴식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었던가”; 「장군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22일 : “진정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었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천만의 맹세속에 이 나라 강산이 밝아온다. 이제 더는 북속에서 북을 찾는 철없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될 천만군민이 아뢰이는 심장의 목소리가 밝아오는 조국땅에 메아리쳐간다.”

2)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적기둥」, 『로동신문』, 2011년 12월 24일.

새로운 100년의 시작에 맞추어 등장한 김정은 시대의 비전이 필요하였다. 김정은이 정치 전면에 나선 2012년 신년사의 키워드는 ‘사회주의 문명국’이었다.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 국가 아젠다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 발전 목표로 작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세계문명을 따라 가는 것이라는 방향 제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운영의 방향이 되었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비전으로 북한이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장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의미와 전략

1. ‘사회주의 문명국’의 정치적 의미

북한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사상이자 국가 발전 목표로 의미를 갖는다. 2012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이 나온 이후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규정되었다.³⁾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권력 계승과 관련된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은 새로운 주체 10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주체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김정은 후계 구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5년이나 10년을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북한에서는 2011년은 주체 100년이다. 2012년은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체 100년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김정은 등장 초기에 김일성주석(이하 김일성)의 외모와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전략을 통해 ‘100년 전에 오셨던 수령님 모습 그대로’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였다. 즉 김정은 시대의 개막은 ‘김정은’의 능력이나 업적을 기반으로 후계자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재림’을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었다. ‘다시 오신’ 젊은 김일성과 함께 시작한다는 이미지가 연출을 위한 최고의 시점이었다.

새로운 주체의 한 세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미래의 이상적인 국가상을 제시해야 했

3)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년 7월 14일.

다. 김일성 시대의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옷’에 해당하는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정일 시대 국가 발전의 목표로 제시한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었다. 강성대국이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로 구체화 된 것이다. 김정일은 2012년 4월 15일 연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에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목표를 현실화 한 바 있다. 김정일의 실리적 리더십 스타일이 반영된 전략적 선택으로 ‘강성대국’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강성국가와 비슷한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백두산 대국’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백두산 대국’은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용어로. 『로동신문』은 2012년 6월 27일 기사 ‘백두산 대국’을 언급하면서, 백두산 대국을 일떠 세우는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정일의 뜻이라고 공개하였다.⁴⁾ ‘백두산 대국’은 2012년에 공개한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윤두근 작사, 김문혁 작곡)의 후렴 가사 “나가자 백두산대국이”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백두산 대국’은 구체적인 국가의 위상을 제시한 것이기 보다는 ‘백두산’이라는 혈통과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이며, 상징적인 레토릭이었다. 반면 사회주의 문명국은 보다 구체화된 국가 발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⁵⁾이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로 분명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김정일이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당의 최고강령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 맡겨진 가장 성스럽고 중대한 혁명과업”⁶⁾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을 선대 수령과 연결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연결지은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노동당의 목표로서 지속되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분야의 목표 역시 ‘문명강국건설’로 집약되어 나타났고, 2019년 12월 28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로 발표된 결과문에서 확인된다.⁷⁾

4) 『로동신문』, 2012년 6월 27일 :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아 주체의 강성국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이 김정일의 뜻이며 결심이다.”
 5) 김정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6) 김정일,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서한(2012년 12월 1일)」, 『로동신문』, 2012년 12월 2일 :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견결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계적인 강국, 사회주의선진문명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 맡겨진 가장 성스럽고 중대한 혁명과업입니다.”

2.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방향과 전략

김정일은 2012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풍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북한의 주요 언론을 통해 ‘사회주의 문명국’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김정일이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나온 ‘사회주의 문명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등일반교육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떠메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시대적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며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량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⁸⁾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는 2012년 태양절을 앞두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두고 진행된 담화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

7) 2020년 1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두 번째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이었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육 분야의 혁신, 첨단 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들과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2012년에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김정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게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고, 관련 내용을 “토의 결정하고 그에 맞게 당규약을 수정 보충”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과제를 확인하고, 당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담화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김정은 시대 노동당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담화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목표는 문화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세계 문명을 따라 가야’하는 과제로 제시되었다. 2012년 4월 27일에는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들과 한 담화를 통해 도로 정비 사업을 문명국 수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고,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국토의 면모도 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 제시한 것은 사상이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장군님께서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선대 수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절대적인 위상을 부여하였다. 당에서 제시한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정책은 문화분야였다. 특히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¹⁰⁾ 과학과 교육, 보건과 문학예술, 체육에서 인력과 제도를 정비하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민들을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인민으로 키우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과학 분야이다. 낙후한 사회 전반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인재 양성도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첫 사회개혁으로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재의 교육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전민 과학인재화, 과학기술보급실 건설 등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다. 문화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 세우면서 각종 유희장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면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9)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 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하신 담화(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2012년 6월 12일.

10)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년 7월 14일.

Ⅲ.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김정은 체제

1.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키워드와 변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기치로 내세운 김정은 체제의 키워드는 ‘변화’, ‘세계화’, ‘국가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변화였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시대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비전에 맞는 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였다.

새로운 시대, 김정은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북한 체제에서 ‘변화’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북한 정권 수립부터 사회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혁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혁명’은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이나 변화라는 의미보다는 ‘혁명성’에 대한 ‘불변’을 의미하였다. ‘나에게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처럼 변화는 곧 변절이나 사상적인 전향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고난의 행군’을 체험했던 사회 구성원들로서는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목표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체험했던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중심으로 인입하는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들로서는 ‘미제의 고립압살’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문명국가’ 건설은 현실성 없는 목표로 보여질 수 밖에 없었다.

국가 비전에 대한 신뢰는 정책 추진에서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시기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과감하고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였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김정은은 시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선택은 예술과 도시 재개발이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변화를 전달하는 메신저는 모란봉악단이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악단 이름을 짓고 시연회와 공연을 수십 차례 직접 지도”한 예술단이었다.¹¹⁾ 2012년 7월 등장한 모란봉악단은 김정이 직접 창단한 악단으로 소개되었고, 창단공연부터 북한이 적대시하였던 미국 가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연주했고, 디즈니 인형 캐릭터가 무대를 누비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시간여의 시범공연은 녹화상황으로

11)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하여 주시었다.”

전체 인민들에게 반영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출된 공연이라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이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공연으로 보여졌을 것이다.¹²⁾ 모란봉악단은 이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 “문학예술 부분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문학예술 창작 창조 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과 기대가 어려 있다”¹³⁾는 평가를 받으면서 김정은 체제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모란봉악단의 혁신적인 창작에 대해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모란봉악단의 일본새’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곧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이었다. 구체적으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대해서는 ‘당이 준 과업을 열백 밤을 때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 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적 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 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으로 설명한다.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은 실리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모란봉악단이 주목을 받는 것과 달리 영화분야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로 북한 영화는 연 5편 정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에는 예술영화를 제작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예술영화가 3년 동안 단 한 편도 창작하지 않았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영화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김정은은 영화 분야의 부진을 비판하면서 영화제작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지자」에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크게 비판하였다.

김정은의 비판은 문학예술 부문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있어 ‘창작가·예술인들의 수준과 창작적 기량도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 뒤떨어져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창조자·향유자도 인민대중’이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문가들이나 이해하고 향유하는 문학예술이 아니라 인민들

12)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 대해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서 펼치였다.……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켰다.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3)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명작창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로동신문』, 2014년 6월 3일.

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문학예술로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¹⁴⁾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문화예술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 “모든 부문이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있지만 문학예술부문은 아직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 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있”다면서 비판하였다. 특히 영화예술은 꼭 집어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영화계의 부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 2019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위원장장은 시정연설에서 “문학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 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⁵⁾ 김정은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반영되기 전에는 형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보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주의 정상국가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정책 방향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끊고, 주체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제적인 예술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기존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9년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¹⁶⁾ 형식적이지만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였다.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시기부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여타 사회주의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조선(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전면에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지자》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15)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16) 표윤신·허재명,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제35권 제3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118쪽 : “김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3월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의회의 분리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90년 이후 29년만이다.”

내 세우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민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민족’, ‘태양민족’, ‘단군민족’, ‘아리랑민족’ 등의 민족담론을 확산하였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강성대국’, ‘강성국가’, ‘백두산대국’, ‘사회주의 문명국’은 모두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국가담론을 확산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조국은 단순한 고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은 ‘인민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담보되어 있는 곳’이다. 나아가 ‘수령의 품’이다.¹⁷⁾

일반적으로 수령의 품은 곧 사회주의 대가정으로서 가족 관계로 환유하였으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국가로 수렴된다. 즉 수령을 민족의 지도자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가정의 품으로 국가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애국의 정도에 따라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민족이 수령과 연결되어 있듯이 2012년 이후로 강조하는 김정일 애국주의는 수령과 조국이 연결되어 있다.¹⁸⁾ 김정일애국주의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3. 지식경제시대의 과학과 교육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것은 과학과 교육이었다. 김정은은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은 ‘문화의 중심적인 형태의 하나로 인류 문명 정도를 규제하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과학은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높이는 핵심 키워드였다. 현재 북한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공통의 경험은 고난의 행군이다. 현재 북한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고난의 행군’은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트라우마였다. 정치적인 위기는 물론 경제 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후의 모든 정책은 ‘고립 압살’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승리가 필요하였다. 북한이 선택한 것은 ‘과학’이었다. 우주개

17)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8년 3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15쪽 :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산천이나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있는 령토적개념이 아니라 인민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담보되어있는곳, 그곳은 다름아닌 수령의 품이라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장 큰 행운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

18)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8년 3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19쪽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근본핵이다.”

발을 상징하는 ‘광명성’은 미제의 ‘고립압살 책동’을 방어하는 상징이자 미래를 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상징이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화성’ 미사일 발사, 에너지 자력을 상징하는 희천발전소 건설, 주체철, 경제에서의 혁신과 과학화를 상징하는 CNC 등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 넣고자하였다.

교육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였다. 교육 개혁의 목표를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의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지식경제 시대를 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전면적 교육개혁과 인력 양성을 통한 사회발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새로운 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첫 개혁과제로 교육 개편 단행하였다.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기존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제로 확대하였다. 교육제도 개혁의 명분은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하고,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교육제도 개편으로 소학교 교육이 1년 늘어난 5년 과정으로 확대되었고, 통합되어 운영되던 중등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이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였다.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와 교육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과서와 참고서를 새로 집필하는 사업,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인들에게도 국제학술지의 논문투고, 국제학술대회 적극 참가, 해외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하였다.

4. 사회주의 선경과 인민생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주목되는 분야의 하나는 인민생활이다.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변화된 도시의 생활상을 상징하는 용어는 ‘사회주의 선경’이다. 사회주의 선경은 2002년부터 사용하는 용어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이상적인 도시와 농촌 풍경이다. 김정일 60회 생일인 2002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선경을 가꾸자고 등장한 이후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용어가 되었다.

사회주의 선경이 사회주의 문명국가 관련하여 주목받는 것은 도시건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도시 건설 사업이다. 도시 개발 사업은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기간이 길지 않았고, 정치적인 업적으로 내 세울 것도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 개발은 인민들에게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였다.¹⁹⁾

2010년 이후의 아파트 건설이 도시 재건축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평양속도’와 함께 등장하였다. 김정은의 정치적 역량도 아파트 건설을 통해 과시되었다. 김정은이 도시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0년 건설된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이었다. 창전거리 건설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업적 칭송과 함께 제국주의와의 결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노동계급을 이끌고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김정은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후계자의 위상은 높아 나갔다. 창전거리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사업을 독려했으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질책하면서 건설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2012년 이후 아파트 건설은 매년 마다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김정일의 유훈을 명분으로 2012년 6월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4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과학자아파트를 건설하였고, 2014년에는 위성과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려명거리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건축은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을 도시건설과 아파트를 통해 보여주려는 듯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으로 지어졌다.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은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을 만큼 과시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세워졌다. 외관에서부터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추진되었다. 2015년 완성한 미래과학자거리아파트는 대동강 변을 끼고 화려한 외관을 갖춘 고층아파트로 건축되었다. 각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퇴직 원로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이다. 미래과학자아파트는 거리 자체도 매우 화려하여, 아파트 외벽을 내온사인으로 장식하였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건축을 ‘21세기 건축’으로 규정하면서, 21세기 건축이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 생활풍습과 생활양식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²⁰⁾

김정은이 우선적으로 공급한 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교육과 과학 분야의 종사자들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아파트,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원아파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우선 지어졌다. 첫 본보기가 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이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교육과 과학 중시 정책을 아파트를 통해 과시한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도시 건설과 아파트 건축은 문학 창작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대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갔다.

19) 「(정론) 참으로 멋있는 시대」, 『로동신문』, 2014.11.18.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리었다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다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20) 「천재적인 예지, 특출한 령도력으로 펼치신 주체건축의 최전성기」, 『로동신문』, 2014년 3월 25일.

김정은 시대의 도시 개발을 상징하는 것은 려명거리 건설이다. 려명거리 건설 사업은 룡흥동 네거리에서 금수산태양궁전에 이르는 구간으로 70층짜리를 비롯하여 44동, 4804세대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사상전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초고층아파트 건설 사업은 21세기 당의 위용을 보여주는 본보기 사업으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과 대결하는 전투로 규정되었다.

새롭게 건설된 도심 지역에서 유희오락 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왔다. 평양시에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룡라곱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습마구락부, 마식령스키, 해당화관 등의 편의시설들이 개건되었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평양에 이어서 개성시에 물놀이장을 건설하고, 함흥에서도 성천강 주변에 물놀이장을 건설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화시설 건설하면서 지방에서 유희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선경’의 모범으로서 평양의 도시미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선전의 공간이자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평양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에 이어서 농촌 문제로 이어졌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선경은 ‘은나랏을 수림화·원림화’를 통한 국토환경 보호였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농촌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문제로 이어졌다.²¹⁾

V. 결론 :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망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제시한 국가 발전 목표이다. 김정은은 등장과 함께 새로운 세기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국가이다.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 목표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세계화를 통해 선진화된 국가로 나서겠다는 목표이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인민들의 문명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선

21) 김정은,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전국 농업부문본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4년 2월 6일)」, 『로동신문』, 2014년 2월 7일 : “우리 인민이 바라는 사회주의문명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다그쳐야 합니다. 농촌에서 전민과학 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며 더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진 국가로서 위상을 찾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김정은의 정책은 과학, 교육으로 모아졌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민들에게 선언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변화는 모란봉악단을 중심으로 한 예술과 고층빌딩으로 대표하는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모란봉악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도시 풍경을 통해 ‘사회주의 선경’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선대 수령의 혁명을 계승하는 문제로 규정하였지만 핵심은 정치보다 경제에 있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존속을 위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 대응하면서 경제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학과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다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국제관광 사업을 통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전략과 연결된다. 즉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인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문화시설과 물질문화 생활의 ‘향유’를 강조하는 것은 인민들의 여가 활동을 진작시켜 관련 사업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과 연결된다.

김정은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역시 경제 발전의 전략이 작동한다. 종합적인 산업으로서 건축을 통해 북한 내부의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내어서 건설을 비롯하여 연관 산업이 활기를 도모하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건설된 편의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²²⁾

사회주의 문명국의 전망 역시 북한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김정은 식의 변화’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어느 때보다 활기 있게 돌아가고 있다. 관건이었던 경제분야가 살아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에 활력이 생겼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당에서 제시한 목표를 따라 자신을 회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욕망의 창출’이라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 미래는 관건의 활기를 보이기 시작한 인민생활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자체의 성장 동력은 한계가 있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로동신문』,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 대장이 계신다>-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집계작」, 2011. 12. 24.
-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었다」, 2012. 07. 09.
- 『로동신문』,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2011. 01. 01.
- 『로동신문』,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2011. 1.
- 『로동신문』,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2013. 07. 14.
- 『로동신문』, 「천재적인 예지, 특출한 령도력으로 펼쳐신 주체건축의 최전성기」, 2014. 03. 25.
- 『조선중앙통신』,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2011. 12. 20.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4 봄호(통권 18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제6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2014.
- 서보혁 외,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 선인, 2014.
- 이지순, “로동신문 수록 가사의 김정은 체제 이미지 연구.” 『세계북한학술대회2015』, 북한연구학회, 2015.
-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나라경제』 제14권 제1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정영철,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향상 『북한연구학회보』제16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2.

22)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통일연구원, 2017), 87쪽 : “각종 건설사업과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되거나 여가생활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경제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른 듯하다.”

· 저자약력

· 전영선

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연구분야 : 북한 사회문화, 북한 문화예술, 남북문화 소통

주요 저서 및 논문 : 『NK POP :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2018), 『북한의 체육정책과 체육문화 : 위성은 우주로, 축구는 세계로』(2018),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3)』(2018),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2017), 『김정은 리더십 연구』(2017),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2016), 『영상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2015), 『북한의 언어-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2015) 등